

공모사업 발굴... 잘사는 정읍 초석 다진다

새암길 주차 환경 개선 등 공모사업 선정 구도심 개발 탄력 쌍화차 거리·쌈고을시장 등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읍시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잘사는 정읍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12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과 희망사업 프로젝트 후보시장 선정사업에 연속 선정됐다.

새암길 주차 환경 개선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는 국비 11억28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국비와 시비 7억5200만원 등 총 18억8000만원을 투입해 수성동 세무서 앞 일원에 주차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이 사업은 오는 8월 부지 매입을 시작해 2018년 7월 경 마무리 된다.

시설이 완공되면 새암길 상점가 고객뿐만 아니라 쌍화차거리와 양자강을 비롯한

정읍명소를 방문하는 나들이객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희망사업 후보시장에 선정된 쌈고을시장 활성화와 문화관광 특화형 전통시장 기반 구축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사업에 2년간 국비 포함 10억원을 투입해 문화 콘텐츠와 특화상품 개발, 지역사회 협업, 청년상인 육성 등의 시장 특화 요소와 강점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쌍화차 거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인센티브로 확보한 국비(특별교부세) 5억원 등 모두 11억원을 들여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을 연계 추



새암길 주차 환경 개선사업이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새암길 상점가 전경. <정읍시 제공>

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일대를 전 고객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부안참뽕·곰소계란밥 맛보세요”

郡, 푸드트럭으로 홍보 나서

부안군의 대표특산물인 부안참뽕과 곰소멸치액젓, 부안쌀이 만난 부안참뽕곰소계란밥이 푸드트럭을 통해 전 국민에게 선보인다.

12일 부안군에 따르면 곰소계란밥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와 곰소오복식품이 고부가가치식품으로 개발해 특허 등록된 건강간편식이다. 참뽕푸드소스를 병입밥에 계란과 함께 넣어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다.

참뽕푸드소스는 멸치액젓에 오디와 뽕잎을 넣고 발효시켜 감칠맛이 높은 신개념 어간장으로 국간장, 맛간장, 꽃게장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김치뿐만 아니라 국, 볶음요리, 나물, 집채 등 공간장을 대체할 모든 음식에 이용이 가능해 한국 전통요리와 동남아 요리, 서양요리까지 모든 요리에 깊은

맛을 더해 주는 고급 소스로 알려졌다.

부안참뽕밥과 곰소젓갈, 계란, 부안쌀, 곰소참뽕어간장이 어우러진 곰소계란밥은 혼밥족과 젊은층을 겨냥한 이색 먹거리로 부안곰소 직영점과 군산에 곰소계란밥 1호점이 푸드트럭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다.

새로 제작된 푸드트럭의 주메뉴는 곰소계란밥, 젓갈계란밥, 소고기정육계란밥, 곰소참뽕어간장국수로 부안참뽕과 곰소어간장 홍보를 위해 2000~35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강성선 부안군 친환경기술과장은 “곰소오복식품의 푸드트럭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될 부안참뽕 곰소계란밥은 뽕비빔밥과 함께 부안의 대표 특산물인 들깨 들어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유통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서용열기자 scy@kwangju.co.kr

군산시, 영화촬영 유치 팔 걸었다

제작비 1억원 이상 작품 체제비용 50% 지원 등

군산시가 근대화유산과 천혜의 비경 고군산군도를 바탕으로 영화촬영 유치 활동에 나섰다.

12일 군산시는 전주영상위원회와 함께 군산에서 촬영되는 영화작품에 대한 체제비용을 50%까지 지원하는 ‘로케이션(location)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제작비 1억원 이상의 영화작품으로 군산에서 3회 이상 촬영을 진행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 작품은 ▲영상 촬영물에 대한 군산시의 저작권 사용 동의 ▲

군산시 지원사항에 대한 상영 오프닝 또는 엔딩 크레딧 표기 ▲개봉 전 시사회 군산 개최 협조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군산에서 영화를 촬영하면 ▲군산시와 전주영상위원회의 언론매체 홍보 ▲촬영장소 추천 및 섭외 ▲보조 배우 모집 ▲영화 촬영 장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군산은 1948년 이만홍 감독의 영화 ‘끓어오르는 항로’ 촬영을 시작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 ‘타짜’ 등 140여편의 영화가 촬영됐다. 지난해는 ‘열혈’과 ‘게이트’, ‘마약왕’ 등의 화제작과 울로케이션으로 진행된 ‘질투의 역사’ 등 18편의 영화가 군산을 배경으로 이뤄졌다.

/군산=박기섭기자 nogusu@

익산지역 산·학·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익산지역 산업분야 기관과 교육기관, 행정기관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술포럼센터와 원광정보인재양성소, 익산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원광정보인재양성소 식품산업인력양성과 창업동아리 육성 등 특

성하고 창업 활성화에 주력하게 된다. 익산시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을 중점 실시하게 된다.

특히 원광정보인재양성소와 창업동아리 등 식품산업에 적합한 실무중심의 인재양성을 위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오는 2019년부터는 청년창업가와 회계·금융사무 인력 양성체계 고도화를 위해 기존의 경영정보과를 창업경영과와 회계금융과로 세분화한다.

/익산=유정영기자 yjy@kwangju.co.kr

“악취 그만” 남원시, 광치천 생태하천으로 복원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최근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광치천 징검다리를 건너며 경치를 즐기고 있다. <남원시 제공>

市, 197억 투입 5년만에 완공

노랑꽃창포·갯버들 등 심어

남원시는 시내를 가로지르는 광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치천은 상류 지역에 밀집한 축사

와 농경지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며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오염된 하천이었다.

남원시는 2013년 복원사업에 착수해 2.3km 구간의 하천에 퇴적된 오수와 폐수의 찌꺼기를 없애고 수질을 정화하는 노랑꽃창포, 붓꽃 등을 대대적으로 심었다.

물고기의 이동을 막는 낚은 보와 낙

차공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호안도 자연 친화적인 조경석으로 대체했다.

둔치와 주변에는 갯버들, 영산홍, 화살나무를 심었고 7만9000㎡ 규모의 생태공원도 조성했다.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축사 160여동과 폐건축물도 없앴다.

이 사업에는 197억원이 투입됐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고창군 ‘수산물 직매장 사업’ 어업인조직 등 대상자 모집

어업인 소득증대 기대

고창군은 수산물의 유통기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물 직매장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중간 유통 마진 없는 수산물 직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일반 소매시장에 비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어업인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산물을 판매해 어가 소득증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 신청 대상은 어업인조직, 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업체 등이다.

총사업비 8억원 이내에서 자부담 50%의 능력을 갖추고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부지 확보 증명서나 부지(토지)사용 승낙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고창군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품질정착어와 바지락, 지주식 김 등 최상 품질의 고창군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직매장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신안군 압해도 북룡리 1810㎡ 저수지점 5000만원
-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영산강 3136㎡ 전원생활적합 5700만원
- 곡성군 삼기면 대지와 전 681㎡ 광주서 30분 내 6천만원

주택 · 원룸 · 아파트

- 전원주택 함평 해변면 대지 966㎡ 집 79㎡ 티마실에서 차도5분 1억5500
- 월산동 소방도로집 2층 주택 전체공실 토지 150㎡ 1억7천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안고 1억4500

투자 · 매도 · 교환

- 곡성군 죽곡면 삼진강 압록부근 계획 관리지역 1439㎡ 팬션 등 적합 1억2천2백 전원주택 적합 4751㎡ 1억6천 임야 10512㎡ 1억
- 수목정(정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종용 2억
- 수목원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쌍촌동 소방도 대지 118㎡ 상가주택 적합 1억6천
- 월산동 월산아파트 664㎡ 2층주택 사할적합 분할매도 가능 4억7천
- 나주 남평시내 상업지 2919㎡ 개발에적합 공사가 8억8천 매도39억
- 신안동 전대정문쪽 토지 160㎡ 주택 70㎡ 찻집등적합 1억7300
- 고흥 나로부근 팬션 땅 9891㎡ 건평 267㎡ 객실 10개 7억6천
- 양동시장 건너 재개발지역 대로면 대지 217㎡ 주택 3억2천
- 금남로5가 대로면 북동상업지 2010㎡ 병행 오피스텔등 적합 52억
- 충정로 5가 도로점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대지 155㎡ 건물 263㎡ 은행 1억4천 매도 3억7천
- 충정로5가 요지 대지 261㎡ 5층건물 1128㎡ 은행 15억 매도 24억
- 북구 문흥동 대지 171㎡ 5층 상가주택 491㎡ 임대생활적합 7억6천
- 양동시장 대로면 땅 2902㎡ 주상복합개발적합 은행 30억 매도 67억
- 순천시 팬션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 8 년매출 1억선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종용 11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헌전, 농성초교앞

임야 "금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자본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80만원 - 금매 8만원 (일시불 완불조건)

■ 문의. 010-3605-5000

최고급 전원주택(별장)

▶ 정남진 장흥, 환상적인 해변의 드라이브코스에 해수욕장, 리조트, 선착장이 어울린 최고급 유럽풍 주택

토지 4,900㎡ / 건물 238㎡ → 매가 7억 2천

캐나다산 수입원목(100%) 목조건물로 최고급 수입 원자재 시공, 조망권 최고! 광주에서 45분!
◎ 남해안에 더이상 고급주택은 없습니다!!

투자만점 ▶ 화순 도곡면 원화리 도곡온천 인근
계획관리지역 전 및 임야 29,198㎡
지역 → 매가 9억 8천 투자최고!!

H. 010-4226-7722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식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찜송 떡갈비/튀김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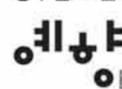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광주 : 광주광역시 광진구 하남산단1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6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